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5월 1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7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경찰관으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오늘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 동 희 -

저는 지난 2017년에 경찰공무원이 되어 현재 수사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교회학교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은혜와진리교회 집사입니다. 청년봉사선교회에 소속하여 교회학교를 섬기면서 경찰관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7년차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도록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또한 이렇게 간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마음에 감동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일과 함께 때로는 흉악범과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범법자를 검거하면서, 사고로 생사를 오가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그 구조를 도우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저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 현상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잘 이겨내게 되고 더한 사명감과 정의감과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신실한

경찰관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저에게 2019년에 ‘수사’라는 비교적 어렵고 낯선 분야의 직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므로 저는 경찰서의 수사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된 후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선량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한다는 정의감으로 근무하였고, 실제로 많은 범죄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혜와 능력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행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직무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성심성의껏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에서 봉사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 힘이 솟아나서 다시 또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기도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저의 경력이 쌓이면서 뜻하지 않게 상급 기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회가 단순히 저의 욕심과 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인지, 정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붙잡도록 확신을 주시고 저의 능력과 경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남부경찰청내 수사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능력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여 매우 바쁘고 부담스러우며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실적을 통해 이를 보상받게 해주셨습니다. 근무하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범죄자를 검거하고 부서에 크고 많은 실적이

쌓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의 경우 대개 부서를 옮기고 나서는 바로 근무평가를 잘 받기가 어렵고 승진을 위해 몇 년을 애써 노력해도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인데 지난 해에 저는 뜻밖에 승진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부서가 훌륭한 실적을 거두도록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현재 관교성전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며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지난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며 후배인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잘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며 낮은 자세로 학생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으로서도 겸손한 자세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시민들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초심을 잃지 않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관 본연의 사명을 다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경찰관으로 임용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휴대전화의 잠금 화면은 변함없이 ‘주님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이미지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자 결심하면서 제가 직접 편집하여 만든 이 이미지를 볼 때마다 사명감이 충만하여지고 무한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군인과 소방관과 우리 경찰관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와진리교회가 선교활동을 적극 후원해주므로 더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봉사선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때에 저보다 더 신실한 자매를 만나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시고 결혼하여 함께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처럼 저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병상에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 장인 어른께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1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전북 정수군 산서면 상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1권 (9단원 : 성도의 삶)

(제49과)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

- 본문 : 고린도전서 8:1-13
- 요절 :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 찬송 : 찬송가 375장(새찬송가 331장), 378장(새찬송가 597장)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큼니다. 불신자일 경우에는 관대하게 보아 넘길 잘못일지라도 만약 그 잘못을 기독교인이 범한 경우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며 또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앞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성도의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가장 높은 요구라도 넉넉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과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권면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도시로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그 곳 사람들은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편,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심하였으며 특히 시장에서 파는 육류는 먼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후에 내다 파는 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교인들 간에 불화와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이란 실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는 식물을 먹노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였고 아직도 우상의 제물을 인정하며 믿는 자로서 그런 식물을 먹는데 대하여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을 가진 교인들이 지식이 없는 교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고로 약한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지식이 있는 자들을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상의 제물로 인정하면서도 먹음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하여 신앙에 연조가 오래되고 지식이 있는 교인들에게 엄중한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전 8:9~12)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전 8:13)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고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는 길로 행해야 하겠습니다(고전 10:23,24).

2.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불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불신자들과 원만하게 지내되 그들과 구별된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불신자 중 누가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면 묻지 말고 그 음식을 먹되, 혹시 그 사람이 이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게 하면 이를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고서도 먹는다면 불신자들에게 성도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상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고전 10:28,29).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복음 전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불우한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데 힘쓰되 육신의 쓸 것을 공급하는데 그친다면 온전한 사랑을 베풀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우리는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하는 헌신과 봉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불신 이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 하겠습니다(마 5:16).

3.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믿음의 형제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자가 될 것이요, 불신 이웃에게도 비난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자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인간적인 의만 내세우게 되어 무익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일로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것과 직장생활과 사업의 경영과 같은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행한다면 성도로서 가장 값진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도 미련없이 양보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고 보람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덕이 될 것이며, 불신 이웃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울진,전주호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김포,장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리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